박두영
Park Doo Young

성리(性理)와 라티오(ratio)

황 인(미술평론가)

박두영은 분할의 작가다.

색띠가 그의 작품의 기본을 이룬다. 화면 속에서 동일한 폭의 색띠가 반복되거나 두 개 이상의 폭을 가진 색띠가 반복된다. 하나의 색띠는 이웃한 색띠와 보색대비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두 개 이상의 색상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화면을 두 개의 보색의 색띠로 나누어 질서정연하게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의 작업이 요체다.

사물이나 사태의 진상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거나 분별하는' 행위를 동북아의 한자문화권에서는 리(理)라고 했고 고대서양인들은 '라티오'(ratio/reason)라고 했다. ratio/reason을 이성(理性)으로 번역한 사람은 일본인 최초의 유럽유학파 철학자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다. 그는 philosophy를 철학(哲學)으로 번역하였다. 메이지 시대 당시 서양의 철학 용어들은 성리학, 주역 등의 텍스트를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리(理)를 일본어로 '고토와리'라 한다. 이것과 저것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이치, 원리, 이해, 논리 등은 모두 성리학적 번역어다.
19세기에 동북아의 철학자가 서양의 라티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리(理 나눈다)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려 이를 결국 이성(理性)이란 조어(造語)로 엮어낸 것은 절묘한 번역작업으로 보인다.

그 번역을 뒷받침한 사유의 근거는 성리학(性理學)에서 나왔다. 성리(性理)가 곧 이성(理性)이고 이성이 곧 성리였던 것. 대부분의 동북아 사유체계가 시간성(장소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 성리학은 플라톤이나 데카르트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공간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성과 성리, 이 둘은 같은 듯하면서도 많이 다르다. 나눔(ratio)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절대적인 공백성(blankness)을 갖춘 무한대 균질공간인가(이성),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적재성(loadedness)을 지닌 느슨한 공간인가에(성리) 따라 이 둘은 구별될 수가 있다.

박두영은 성리학이 우세한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토포스에서 생장했다. 그의 가계는 성리학적 기반과 기풍이 강했다. 그는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생이지지(生而知之)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편, 그에게 학이지지(學而知之)가 있다면 그의 곁에 도널드 져드를 세울 수가 있다. 도널드 져드는 모더니즘의 최고정점에 섰던 작가다. 모더니즘이 이성의 절대적인 신봉에서 출발했던만큼 그는 철저한 이성(理性 ratio)의 작가다. 1990년대에 도널드 져드가 서울을 방문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영향의 지속은 전국은 물론이고 서울의 화단에서조차 미미했다. 유독 대구 경북지역의 화단에 국한하여 사건성이 강력하게 지속되었다. 학이이지도 어느 정도 생이지지를 갖춘 자에게만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도널드 져드가 보여준 작업의 요체는 '균질공간'(universal space)의 엄정한 수학적인 분할에 있다. 그는 우선 캔버스에서 몸이 개입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소성을 소거하고 그 자리에 비가시적이고 관념적인 균질공간을 대입하였다. 데카르트가 주창한 균질공간은 추론적인 내관(內觀)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절대적인 공백성을 지녔다. 어떠한 물질도 물성도 용납할 수 없는 허공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는 이 공간을 이성(理性)을 갖춘 수 즉, 유리수(有理數 rational number)로 분할했다. 유리수라 함은 두 개의 정수(整數)로 된 분수(分數 fraction)까지를 포함한 수의 집합이다. 숫자 대신에 공간의 수직과 수평의 분할을 통해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봉을 드러내었다.

공간의 분할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하는 도구는 1이라는 기본단위의 반복적인 확장을 통해 결국 무한대 공간까지 계기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비인칭(非人稱)의 숫자다. 져드가 공간분할에 엄정한 수학적 계산을 적용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작가의 인칭을 소거하고 균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재료와 기법을 중성적으로 또 기계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처리한다. 여기까지가 져드가 사유한 나눔의 세계 즉, 무한한 공간을 관통하는 이성(理性 ratio)의 세계다. 이는 박두영이 학이지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영역이다.

박두영의 대부분의 작업들이 공간의 분할(ratio)을 택한 점에서는 도널드 져드의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다만 박두영에게는 보색대비의 강렬한 색면을 유독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보색대비에서 하나의 색이 결정되면 대칭이 되는 보색의 색상도 결정된다. 작가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이 또한 비인칭의 세계다. 내가 느끼고 감수하는 지각의 세계와 무연하게 이미 비인칭적으로 결정된 인식의 세계라는 점에선 리(理)의 세계와 통한다.

작가는 비인칭적인 합리의 세계를 일상적인 레이디 메이드적인 조형물에서 찾았다고 한다.

“1992년의 어느 날, 칸을 나눠 보색으로 채운 화면을 내 미술로 전격 채택하였다. 그것은 당시 고민해왔던 주제나 형식 문제에 앞서 “실천적 태도”가 보다 가치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는데, 이왕이면 기예와 권력 같은 것은 개입되지 않게 하리라는 다짐을 하였고, 그 방편으로 어닝이나 가림막 같은, 거리에서 흔히 보아온 줄무늬를 그림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 이미지가 회화의 관습을 추궁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미술은 “이성(理性)의 도해(圖解)”라는 평소의 소신과 부합되는 것이기도 했다.”

창작과 무관하게 그가 발견한 레이메이드가 결국은 색띠 작업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그가 신뢰하는 리(理)의 세계가 내재하고 있었음을 알아챘다고 말하고 있다. 박두영 역시 도널드 져드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수학적 계산으로 공간을 분할하며 리(理)를 끌어낸다. 다만 이를 조형적 결과물로 이끌어내는 프로세스가 이성이 아니라 성리인 점이 다를 뿐이다.

성리(性理)란, 리(理)와 더불어 성(性)을 구현하고자 한다. “리(理)가 천지간의 사람과 사물이 공유하는 이치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면, 성(性)은 나에게 있는 이치다.”
蓋理是泛言天地間人物公共之理, 性是在我之理 -北溪陳淳(1159-1223)의 北溪字義에서
라고 설명한 건 주희(朱熹)의 제자인 남송시대의 성리학자 진순(陳淳)이다.

리(理)가 비인칭적이고 균질적인 통합을 꾀한다면, 성(性)은 ‘나’라는 일인칭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나의 몸이 자리하고 몸을 실감하는 곳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다. 일반적으로 공간과 장소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서 겹칠 수가 없는데 성리학은 공간과 장소 이 둘이 겹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리학에서는 공간과 장소 이 둘이 몸(身)에서 이어진다고 여긴다. 나의 몸을 다스리는 수신(修身)은 리(理)와 성(性)을, 공간과 장소를 이어주고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다시 공간의 분할로 돌아가 보자. 고대수학에서는 분수를 나타낼 때 1/2, 1/3, 1/8 등 단위분수(Unit fraction)만을 사용했다.
단위 분수는 1/5, 1/8, 1/127 같이 양수의 역수 (reciprocal)로서 1을 분자로 하는 분수를 말한다.
단위분수를 사용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전체 속에서 나의 몫이란 개념이다. 수확물을 3명이 공평하게 나누면 나의 몫은 1/3이 된다는 것이 합리(合理), 즉 리(理 나눔)에 합당(合當)하다는 뜻이 된다.

이럴 경우 단위분수의 분자 1은 ‘나’에 해당한다. 즉 이성(理性 ratio)에도 원래는 ‘나’라고 하는 일인칭이 숨어있었음을 의미한다. 분수에 맞는 1이라는 몫이 성(性)이 된다. 이를 박두영의 캔버스에 적용하면 균질공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화면전체 속에서 한 줄의 색띠가 된다. 색띠는 전체화면 속에서 그 폭의 비율만큼의 분수가 된다. 이성을 가진 숫자 분수(分數)는 성리의 몸의 분수(分數)가 된다.

그리고 전체 화면의 균질공간 안에서 색띠의 폭만큼의 성리학이 공간과 함께 거두고자 하는 장소(場所)의 기미가 돋아난다. 그곳이 공간이 아니라 장소임을 드러내기 위해 색띠를 살짝 비균질적으로 처리한다.

박두영은 이런 과정을 생이지지로 받아들인다.

미니멀 아트는 어디까지나 공간의 미술이다. 박두영의 작업은 얼핏 미니멀 아트를 연상케 하지만 공간에서 장소를 돋아나게 하는 작업이 병행이 된다. 장소성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의 방법이 동원된다. 하나는 몸이다. 몸을 은유하는 것은 붓질이다. 붓질의 주체는 일인칭의 신체다. 신체 중에서도 형이상학적 신체(metaphysical body)인 신(身)이 동원된다. 신은 형이하학적 신체인 체(體 physical body)와 달라서 정제된 일인칭의 기미만 드러낸다. 조심스럽고 절제가 되어있다. 절대로 색띠라는 경계를 넘어가는 법이 없다. 특히 최근에 하고 있는 종이 색띠 작업에서는 물감의 비균질성을 통한 신(身)의 지극한 경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또 하나는 색띠와 색띠의 경계를 강조하기 위해 그라데이션을 나타낸 점이다. 균질공간이란 통으로 이어진 공간이다. 하나의(uni) 결(verse)로 된 세계(universe)이라서 경계가 없다. 경계란 장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장소는 거칠기 때문에 밀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성과 성리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이 두 세계를 함께 고민하며 작업을 하는 박두영의 분투에 기대어, 동북아가 이어온 사유의 전통이 새로운 조형적 세계의 전개로 열릴 것을 기대해본다.